

사회

LH 새 아파트 주차장서 물 뚫뚫

노대동 휴먼시아 6단지 입주민 불편 호소 배수로 물 안 빠지고 악취에 곰팡이도 LH측 “일반적 현상... 전면보수 어렵다”



최근 누수와 결로현상이 발생한 광주시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 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 바닥에 25일 '주차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여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해 1년이 지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분양한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수와 결로현상이 발생,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 아파트 6단지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LH 측은 이 아파트단지를 지난해 6월께 완공, 분양했다.

지하주차장 내에서도 상황이 심각한 일부 지점의 바닥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거나 심하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정도라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실제로 결로현상이 심한 몇몇 주차면에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으니 주차를 삼가달라'는 내용을 담은 관리사무소 측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총 74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꺼리고, 대신 주차면수가 69면에 불과한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민 김모(33)씨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녹이 섞인 물방울이 차량에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지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부족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을 둘러싼 가장자

리에 설치된 폭 20cm·깊이 5cm 가량의 배수로에 고인 물 역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고이면서 악취와 함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입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LH 측은 지하주차장 누수와 결로현상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임시 방편으로 곳곳에 수습대의 제습기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 배수로 물고인 현상은 배수로 설계 또는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LH 측은 누수와 결로현상이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전반적인 보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조금씩 결로와 누수현상이 나타난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404세대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단지에는 이날 현재 모두 395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김모기자 kimho@kwangju.co.kr

리에 설치된 폭 20cm·깊이 5cm 가량의 배수로에 고인 물 역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고이면서 악취와 함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입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LH 측은 누수와 결로현상이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전반적인 보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모기자 kimho@kwangju.co.kr

“전라도 애들이 서울서 너무 설쳐”

서울폭력조직 집단 동맹 전주조폭에 보복 폭행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기 조직원을 때린 지방 출신 조직폭력배를 집단으로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흥기 등 상해)로 서울 내 폭력조직 일원 고모(27·구속)씨 등 15명을 일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17명은 지난 6월4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전호동의 한 웨딩홀에서 폭력조직원 자녀의 돌잔치에 온 '전주 나이트파' 조직원 홍모(27)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몸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답십리파', '이

글스파', '화양리식구파' 등 서울에 기반을 둔 폭력조직에 속한 이들은 홍씨와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전라도 애들이 서울에서 설친다'는 등 지방 폭력조직을 낮춰보는 발언을 한 자기 조직원을 집단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재차 보복하기 위해 집단 상경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과 맞붙기 위해 특수 제작된 흉기 등 상해 도구를 지니고 단채로 차에 타고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 검문에 걸려 해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필뉴스

나원침 (8388) 김중두



과속 즐기다간 보험료 더 낸다

“2년간 무인단속 3회 이상땀 할증”

내년 5월부터

내년 5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과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년간 신호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과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

다. 보험료 할증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횡수에 따라 5~10% 정도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될 것”고 설명했다.

연필뉴스

옛 전일저축銀 불법대출

전직 임원 등 3명 구속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25일 은행에 7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전일상호저축은행 감사 양모씨와 건설업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무 김모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선 불법대출의 가담 정도가 작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갚은 점을 인정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3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이 은행 임원 2명과 불법대출을 받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명절만 다가오면...’ 中 조기 국산 둔갑

목포해경, 1억3천만원 어치 재가공 일당 적발

목포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재가공한 뒤 원산지를 변경해 판매하려 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로 영공의 한 조합법인 대표 A(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중국산 냉동 조기 2612두를(1두를 20마리)을 부산의 관매하려 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로 영공의 한 조합법인 대표 A(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추석을 앞두고 값싼 외국 수입산 제수용품이나 외국산 선물 등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값이 비싼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등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품관원은 우선 내달 4일까지는 부정유통정보를 수집하고 11일까지는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품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2만1000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날 해양경찰청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이나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조기, 명태, 방어, 문어 등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필뉴스

간첩단 ‘왕재산’ 5명 구속기소

총책, 김일성과 직접 면담 군사정보 보고 공로 훈장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위한 남한 내 조직을 구축해 활동한 반국가단체가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통해 서울·인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정치권 동향 등 정세정보는 물론 각종 군사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공로로 북한 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정국 혼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을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정치권 상층부 공작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환)와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총책 김모(48)씨와 인촌지역책 임모(46)·서울지역책 이모(48)씨, 연락책 이모(43)·선전책 유모(46)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담, 간첩, 특수장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5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총책인 김씨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1년 전인 1993년 8월 김 주석과 직접 면담해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유일적 영도 체계 구축, 김일성 부자 혁명사상과 위대성 보급 등 5대 과업을 내용으로 한 ‘점검교시’를 하달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또 조직원의 정치권 침투를 하라는 지령을 받아 정치인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한편 정치권 내 지위확보를 위해 정당원으로 활동 중이던 서울지역책 이씨를 임재정 전 국회의장 정부비서관으로 활동하게 했다.

연필뉴스

“차량용품 판다” 속여 1100만원 꿀꺽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 ‘차량용품을 판다’는 글을 남긴 뒤 구매자가 송금한 돈만 챙겨 잠적한 20대가 경찰서행.

○2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박모(25)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자동차 휠을 싹싹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회원 70여명으로부터 1120만원을 받은 뒤 물건은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미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중이던 박씨는 지인의 승용차까지 훔쳐 도피행각을 벌이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판명.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